

인터넷 이용 인구 3천만 명 시대, 정보의 바다에는 불교가 가득하다. 인터넷만 켜면 큰 스님의 주장자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고 불교 관련 행사들이 동영상으로 불자들의 인방에 제공된다. 그야말로 사이버 인드라마 속에서도 살고 있는 셈이다.

‘일과 수행’의 두 바퀴를 굴리는 일터불자들도 마찬가지. 신행정보와 불교지식을 찾기 위해 사이버 세상에 불법의 뗏목을 띄우는 직장불자들이 많다. 인터넷에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은 기본, 사이버불교대학에서 공부, 아예 인터넷 포교사로 나선 직장불자들도 있다. 매일매일 ‘신행정보의 바다’에서 불법을 누아올리는 일터불자들. 이들의 사이버 신행 노하우를 배워본다.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 ② 직장 동료·상사·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즐기고 있습니까?
-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다 있다.
-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 ⑦ 불교 계대로 민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 ⑧ 한달에 한번 집중수행 필요
-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없는게 없는 사이버 사찰... “사무실이 법당이죠”

30분 일찍 출근 인터넷 켜고 예불·명상·교리공부에 뉴스까지

‘사이버 법당’ 참배로 하루 시작

농협중앙회 불교회원 이종훈 경영검사부 팀장(48). 그의 출근 시간은 30분이 빠르다. 인터넷상에 창건한 ‘농협불자 사이버 법당(daum.net/nacfbuda)’을 참배하기 위해서다. 우선 농협불자 법당에 업데이트 시켜놓은 ‘통도사 새벽예불’ 동영상으로 아침예불을 올린다. 그리고 <천수경>과 <반야심경> 동영상을 연이어 ‘보고 들으며’ 특경을 한다. 25분 남짓, 사이버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곧바로 명상음악을 듣는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

이 팀장이 이렇게 사이버 법당에서 참배를 한 것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늘어난 업무량에 능력급 연봉제 등으로 근무환경이 딱 조여지면서 사찰을 직접 찾은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행의 고삐는 놓지 말아야겠다고, 근무여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인터넷이 고민 끝에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사이버 법당 참배였다.

이 법당의 기발한 발상은 최근 벌이는 ‘매일 농협법당에 현향하고 꼬리말 달기’ 운동으로 이어져 100여 명의 농협 불교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인터넷은 직장불자들에게 참으로 유용한 ‘놈’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치고 몸과 마음이 늘 쫓기는 직장불자들에게 손쉽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하죠. 사이버 법당에서 갖는 예불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농협 불교회원 현몽관 은평구지점장(48)도 인터넷에서 불교와 만나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는 현 지점장은 신행원잡인 서울 회계사 홈페이지부터 찾는다. 그날의 승산 스님의 텍스트 법문을 읽고 감명 깊은 법구를 정리한다. 또 즐겨찾기로 모아둔 ‘부다뉴스(buddhanews.com)

등 불교계 언론사들의 뉴스를 보면서 교계 현안도 살펴본다. 그리고는 스님 법문과 자신이 간추린 불교계 소식들을 사내 내부 전산망에 있는 우리은행 불자회 게시판에 올린다.

“직장인들은 꿈을 꾸고 직장 일로 끈다고 합니다. 촌각까지 아껴 쓰지 않으면 일은 물론이고 신행생활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쪼개 사이버 상에서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청량제가 됩니다.”

클릭클릭! 불교를 배운다

2003년 대구영남대학교사이버대학 기초반을 졸업한 제주도청 불자회원 강대성 농경유통과 계장(52). 인터넷에서 불교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견할 수 있어서 그렇다. 퇴근 후 1시간씩 특강 동영상을 보면서 그간 몰랐던 불교교리를 하나 둘씩 알아갈 때면, 작은 법설(法說)까지 경쾌하고도 말한다.

“전에는 불상을 봐도 어떤 부처님인지 몰랐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불교에 대해 물어도 늘 머뭇머뭇 굴적거렸지요. 이제는 불상의 손 모양으로 무슨 부처님인지 단번에 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불교공부가 제 신행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 신행점검을 받는 일터불자도 있다. 경기 양주군청 정미자 씨(53)는 사이버 절 ‘열린절(cafe.daum.net/bununa21)’에서 시승 법현 스님(서울 자운암 상임법사)에게 메일로 지도를 받으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불교에 갖 입문한 정 씨로서는 일생생활 속에서 자기 신행 상태와 기초교리를 배우는데 귀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대중법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도 남의 눈치 보느라 손

들고 질문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인터넷 불교공부방을 알게 되면서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질문을 자유롭게 게시판에 올리면 수시로 스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요.”

아예 본격적으로 ‘인터넷 포교사’로 나선 직장불자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한법사 잠실역무관리소장(56·대). 한 소장은 지난 97년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2년 넘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올 1월 ‘직장불교(cafe.daum.net/officebuddha)’를 개설했다. 카페를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불교를 처음 접한 직장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인터넷 포교. 때문에 한 소장이 만든 ‘직장불교’ 카페에는 불교기본 상식에서부터 경전해설,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아무진 코너들이 수도룩하다.

맹목적인 인터넷 위주 신행은 위험

‘인터넷 포교사’로 유명한 서재영 동국대 강사는 사이버 상의 신행활동이 증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신행 활동은 보조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불교 관련 정보들이 반드시 ‘올바른 정보’가 될 것이라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불법을 가장한 타종교의 선교자료, 미신과 기복을 조장한 정보들이 불교에 처음 입문한 직장불자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강사는 직장불자들이 바른 불교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욕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 공신력 있는 종단, 단체들이 제공하는 불교정보를 우선 취하라고 말한다.

특히 서 강사는 직장불자들이 맘 놓고 인터넷 신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범종단 차원의 ‘인터넷 불교정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행정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14년 전입니다. 불교방송이 첫 시험방송을 끝내고 개국 하던 날인 5월 1일, 우리 불자회도 함께 창립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첫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때의 환희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운수종사자 상호간의 신행생활을 증진하는 신행단체로 출범하는 순간, 불자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월 각 사찰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리는 큰 법당’이란 애칭에 걸맞게 인터넷 홈페이지(www.bbsmbus.co.kr)로 만들어 매일 회원들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방송의 일체의 지원이 중단돼 일반회원의 불교방송 소속감 저하로 불자회가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불자회는 다부진 활동계획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불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원들이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 행사준비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모습.

‘달리는 법당’에선 法音 울려 퍼지고 범우애·신행의지 ‘멈추지 않는 바퀴’

우리 불자회는 개인택시 3개조와 버스 및 일반인의 1개조의 회원 500여명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했습니다. 뒷 우리창에 불교방송 스티커를 붙이며 ‘달리는 큰 법당’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히 버스 조는 많은 승객에게 불교방송이 방송되고 있음을 알리고 승차 중이라도 불교방송의 내용을 청취하고 불교방송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택시 조는 불교방송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며 포교했습니다. 걸림 없는 포교를 위하여 각 사찰에 개설돼있는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법사 또는 포교사의 자격을 얻어 신행생활과 함께 포교에도 적극적인 회원이 많았습니다. 대한불교대학의 법사단에서, 조계종 포교사단 직장직능 팀에서 군 포교와 직장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조별로 매

교방송과 우리 불자회원은 한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송홍보와 방송포교에 사명감을 갖고 신행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의 단합과 신행생활을 위한 사찰순례와 체육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불교방송 각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 진행자와 제작팀에 힘을 실어주고 청취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택시 조의 경우, 승객과 대화에서 불교방송을 듣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포교하고 타 종교 신도에 비해 사찰에 개설돼있는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법사 또는 포교사의 자격을 얻어 신행생활과 함께 포교에도 적극적인 회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불교방송 지방구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조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변용구 회장

석일선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조상일체 선망부모 태아영가 무주고혼 특별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일광 석일선 스님의 10만 영가 구제서원으로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제에 꼭 동참을 하시어 영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천도제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으며 금번에 합동천도제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제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제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제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썰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뒤(썰을 푸는 도구)로 썰을 한없이 퍼우며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제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선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제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엔 항상 아예가 아파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천도제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제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었던 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합동천도제 동참 일 시: 2004년 10월 1일 오전 11시
합동천도제 동참 보시금: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합동천도제는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에서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서울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천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릉정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정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시켜 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제정

대원상(大圓賞)

제 2회 대원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 **시상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정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2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흥부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화해충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시상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특별상 : 신행, 학술, 교육, 복지 부문 약간 명,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수상자 선정 기준**
 ① 대상 승가 부문은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고,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④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⑤ 각 부문 수상자는 이전 3년 동안에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⑥ 향후 해당 부문과 관련한 활동 계획을 참고합니다.
- ⑦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불교계 저명인사들로 '대원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십시오)
 ① (양식)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② (양식)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 개인 / 단체 부문 이력서.
 ③ (양식)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 포교 활동 공적서.
 ④ 관련 부문 실적 자료.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2004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본 원 사무국.
 우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02) 719-1855, 2606
 - 홈페이지: www.kbpf.org / e-mail: kbpf@kbpf.org
 ③ **접수 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자 소인 유효).
- **시 상 식**
 ① **일 시:** 2004년 11월 19일(금) 14:00.
 ② **장 소:**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대법당.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